

광주·전남 표심잡기 총력 유세전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선대위 발대식·출정식
민중 압승 결의·야당은 "일당독점 견제할 힘 달라" 호소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31일 시작되면서 각 정당과 광주·전남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관련기사 3·4·5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 각 정당은 이날 후보들을 총동원, 선대위 발대식과 출정식을 여는 등 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 유세전을 펼쳐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압승을 결의했다. 이날 출

정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이형석 상임선거대책 위원장과 94명의 광주지역 전체 후보자,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 모든 후보자들은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박주선·김동철 중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에서 출정식을 연 데 이어 오후에는 권은하·주승용 광주·전남 선대위원장,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 박매호 전남지사 후보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

짐했다. 이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젊은 리더십으로 광주와 전남을 바꾸겠다"면서 "일당독점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당의 최대 승부처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서는 등 세화산에 주력했다. 조배숙 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김경진 중앙상임선대위원장, 천정배 광주상임선대위원장, 최경환 광주시장 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출동해 광주 양동시장 합동 유세에 참석, 후보들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을 견제하고 광주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평화당에 투표해야 한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앞서 평화당 광주시당은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3지방선거 필승 선거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당 전남도당도 이날 오전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민심 속을 파고 들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광장에서 나경재 광주시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 15명과 1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고 목표 득표율 21% 달성을 위한 21개의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정의로운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류가 되고, 낡고 부패한 수구세력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재 광주시장 후보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TV토론회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과 민중당을 지지하는 노조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5·18 민주광장에서 승리를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사도 교육감 후보들도 선거캠프별로 출정식을 가진 뒤 거리유세를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장휘국 후보는 보건노조 조선대병원 방면,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에 광주역에서 출정식을 했다. 이정선 후보는 오전 광산구 일대 유권자들과 만나고, 최영태 후보도 이날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는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 독주와 이에 맞서는 야권·무소속 후보들의 사활을 건 대결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제45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6일(수) 오전 11시 빛고을광주시민문화관 대공연장서 시상식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45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을 6일 오전 11시 빛고을광주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수상자 이일우 씨 (상이군경 부문 · 70 · 남구 방림동)
- 이상분 씨 (중상이자배우자 부문 · 52 · 북구 양산동)
- 최금순 씨 (미망인 부문 · 85 · 남구 노대동)
- 이연산 씨 (유족 부문 · 72 · 서구 양동)
- 이석춘 씨 (특별 부문 · 86 · 광산구 신가동)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남북 철도 복원·이산가족 상봉 탄력 만나

오늘 남북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1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경제·체육·사회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 논의 의제로는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적십자·군사회담 일정조율,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6·15 남북공동행사, 산림협력 등이 꼽힌다. 우리 측에서는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나선다. 북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필두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우리 측 김정렬 차관과 북측 김윤혁 부상이 철도·도로 연결, 김남중 실장과 박용일 부위원장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각각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북·미의 밝은 미래가 저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중앙)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창밖을 내다보는 김 부장(왼쪽) 일행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12일 열릴 것"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6·12 싱가포르 공식화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날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 회담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담을 언급,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오는 이른 시간 북한 당국자들과 만났으며, 그들의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전·경호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싱가포르에서 오늘 일찍 만났으며 내일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의 회담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6월 12일 회담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말한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며 회담이 6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 12일 열린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렇지 않고 회담이 7월 12일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7월 12일"을 특정해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뒤 뉴욕으로 이동, 김 부위원장과 만찬을 함께하고 31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은 회담 일정으로 꽉 찰 것"이라며 북미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으로 장시간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지금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뿐 아니라 DMZ 회담,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등 지금 진행되는 대화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집중될 것이다. 우선적 초점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어 생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파괴무기 문제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주제에 대해 미리 앞질러 가지 않겠다"며 "그러나 분명히 많은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100세 철학자 김영철 교수(가운데)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앙상블 디토 DITTO 다이나믹라운드



광주일보는 창사 66주년을 맞아 스타 비올리스트 리처드 클리프 용재오닐이 이끄는 앙상블디토 공연을 오는 6월 18일에 개최합니다. 관객들을 찾아가는 '앙상블디토 - Dynamic DITTO'는 디토가 공감과 젊음을 모토로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2018 디토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2015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대만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연형, 2014 루빈슈타인 콩쿠르 은메달 수상자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아시아 최조의 피날레 카를로스 콩쿠르 1위 수상자 알리스 몬태규,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첼리스트의 김한이 참여해 브람스의 '피아노4중주 2번' 등을 들려줍니다. 광주일보 독자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버르토크 : 콘트라소프
- 쇼스타코비치 : 피아노 삼중주 2번 e단조, 작품 67
-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2번 A장조, 작품 26



Ensemble DITTO

(C) Sangwook Lee

2018. 6. 18 [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이사이문화 | 티켓 88,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 ticketmaru.co.kr 문의: 062-220-0541